

상명리 마을 사진 백서

상명人 물건 品

기
억
을
기
록
하
다
—
두
번
째

SANGMYEONG-RI VILLAGE



BEFORE : 1995

1995년에 지어진 '한림농협 농산물 간이집하장' 전경
보리, 절간고구마 등을 수매하고 저장했던 창고



옛 '한림농협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2018년 리모델링하여
2020년 개관한 '상명정낭문화공간'

AFTER : 2023



여는 글

책을 펴내며...

상명정낭문화공간은 옛 '한림농협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리모델링되어 탄생된 공간입니다. 그 때에도 수확물을 수매하고 저장했던 터라 그런지 상명정낭문화공간은 사람이, 웃음이, 사랑이 함께하는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상명정낭문화공간 문화기획자로 아이디어와 손 때를 묻혀주시고 계시는 박명숙, 방진, 서범천, 서유미, 신은순 선생님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명 人, 물건 品> 기억을 기록하다. 두 번째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양희창 이장님의 바램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지는 이신디 우리 어멍, 아방이 나와사 육지에 사는 자식에게도, 제주시에 나가 사는 손주들에게도 보여줄 거 아니~” 상명 마을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매년 몇 분씩 만나 신다보면 다 기억들이 기록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올해 두번째 걸음입니다.

찾아뵙는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고사하신 마을 어르신도 계시고, 화장 안 한 모습은 보여주기 싫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시기도 하셨지만~ 내년엔 꼭! 또 찾아뵙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질문을 정해 해당되는 이야기만 실었지만 뒷이야기로 상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상명이 어떻게 더 변화되면 좋은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먼저앞선 친구들을 그리워 하시는 눈빛들...

담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담아 기록할 수 있을까를 만나 뵙고 돌아서면서 고민합니다.

올해 상명 마을미디어 기자단 친구들과는 상명 마을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 교육을해드리고 싶었으나 해변 정화활동과 해양 환경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을 더 기억해야겠네요

2023년을 마무리하며
상명정낭문화공간 문화기획자 대표 이 현 화

Contents

인터뷰

- 강행춘 삼촌 (현 노인회장님) / 08
- 김옥화 삼촌 / 11
- 양문석 삼촌 / 14
- 안익주 삼촌 (현 목장조합장님) / 17
- 장월출 삼촌 / 20
- 박소이 삼촌 (현 리사무장) / 23
- 양우생 삼촌 (현 개발위원님) / 26
- 강복순 삼촌 / 29
- 고남근 삼촌 / 32
- 홍순화 삼촌 / 35
- 강경일 삼촌 / 38
- 이도경 삼촌 (현 스토브온 사장님) / 41



함께 한 친구들

상명 청소년 마을 미디어 기자단 / 44

신암중학교 2학년

강혜인, 김해민, 정유현, 정하울

수원초등학교 6학년

고형도

구암초등학교 6학년

김규림, 정유호, 정태울

애월초등학교 5학년

송지우, 송진우

구암초등학교 5학년

정라울

구암초등학교 4학년

김유찬, 송하은

마을 사람들도 조금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긴 것 닮아 좋은게.



강행춘 삼촌 현 노인회장님



Q. 삼촌, 성함과 나이 끌어줍써

A. 강행춘, 76세 (1948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나고 자라고 여기서 계속 살았주게.
슬하에 아들만 넷인데 다 나가 살고 셋째
아들만 상명 살암서. 제주시서 직장다니
는 아들. 들어왕 살랜 했주게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
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지금은 사유지라서 완전 다르지만 어렸을
때 할망당 옆에 공터에서 친구들과하고 씨
름도 허멍 놀았주게
요즘 말로 올레~ 난 거기가 막 기억나주게
그 때 5~6명이서 놀던 친구도 다 없지만.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일만,
일만 하당보난 집도, 과수원도 하우스도
생겨신디..물건들은 다 의미가 어서.
그래도 가난하던 우리 마을에 풍력발전
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조금 자산이 생겨
서 마을 사람들도 조금 마음이 넉넉해지
고 여유가 생긴 것 닮아 좋은게.





강행춘 삼촌의 보물1호

〰 풍력 〰
발전단지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 할망당 옆 공터 〰



약혼사진이 기념이기는 하지
귀중한 추억도 되고, 보물도 되고...



김옥화 삼촌



Q. 삼촌, 성함과 나이 골아줍써

A. 김옥화, 76세 (1948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A. 상명에서 태어나서 서울가서도 살다가
아가씨 때 내려와서 결혼하고 다시 상명
에서 쪽~ 살았주게**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
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A. 상명마을은 마을 포제를 지내는데 재정비
해서 현재 포제단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A. 소중한거. 그래도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았시난. 한립읍에 있었던 진주사진관
에서 찍어신디 약혼사진이 기념이기는
하지 귀중한 추억도 되고, 보물도 되고

김옥화 삼촌의 보물1호

〽️ **약혼사진** 〽️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 **포제단** 〽️

마을에서 하나밖에 남지않아서
더 소중하고, 귀하기도 하고...



양문석 삼촌



Q. 삼촌, 성함과 나이 끌어줍써

A. 양문석 79세 (1945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상명에서 태어나서 4살까지 살다가 이후
에는 협재에서 살았주. 18살에 다시 상명
와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멘.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
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우리 어렸을때는 장난감이 없고 마을
구석구석이 놀이터쥬. 저녁에 태권도 하고
나서 중천이물에서 해엄치명 놀은 그게
제일로 재밋고 좋아서.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저 시계는 대단한거라. 청년 계원 모임에
서 결혼선물로 해준건데 마을에서 하나
밖에 남지않아서 더 소중하고, 귀하기도
하고





양문석 삼촌의 보물1호

ㄹㄹ 시계 ㄹㄹ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ㄹㄹ 상명리 복지회관 ㄹㄹ

(예전 상명리민관)



상명마을공동목장은 꼭 지켜서
진짜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안익주 삼촌 현 목장조합장님





Q. 삼촌, 성함과 나이 골아줍써

A. 안익주, 63세 [1961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태어나면서 죽~ 상명에서 나고 자랐져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상명마을공동목장은 1935년 조성되신디 전망도 너무 좋고 목초가 아름답고, 특히 해질녘 마을공동목장에서 보는 석양의 모습은 훌륭하지
 지금은 공동목장이 남아있지 않은 마을도 많은데 그만큼 여러사람이 지키기가 생각이 다르니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상명마을공동목장은 꼭 지켜서 진짜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장소라고 생각함서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정원 꾸미는 걸 좋아해서 2000년도부터 집지으면서 쪽 키워 온 나무하고 화초들... 다 보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나무가 최고 보물이지만
 소나무가 늘 푸르고 곧아 보면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47세에 조경자격증도 따면서 애지중지 키워 온 거라 더욱 마음이 가지



안익주 삼촌의 보물1호

정원나무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마을공동목장



아들이 사 준 자동차를 모는거
나한테는 보물이주게!



장월출 삼촌



Q. 삼촌, 성함과 나이 알려주세요

A. 장월출, 79세 (1945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A. 어릴 때 서울 올라강 20년 살당 할머니가
90세 넘은 막내 손주딸 하나 이신거 시집
안가난 시집가라해서 내려왔주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 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십니까?

A. 7~8살때 중천이물에서 놀다 빠져 죽을
뻔 해부난 잊을 수가 어신 장소주게. 그것
도 오빠가 9살에 저지물에 빠져 죽어부
난 나는 엄마 몰래 가신디 다행히 큰 일은
면했어도 잊어버리지는 못하주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주세요

A. 77세 되서 딴 면허증과 아들이 사준 자동
차가 내 보물이라.

77세에 면허증 따젠 허난 40분 시험시간
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나가부
난 첫회는 나도 그냥 나와서 떨어지고.
두번째는 오십 몇 점으로 떨어지고 필기
세 번 만에 붙고 실기는 단박에 합격했주
경한 저 아들이 사 준 자동차를 모는거난
나한테는 이 두개가 보물이주게





장원순 삼촌의 보물1호

면허증
자동차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종천이물



아이들과 함께 직접 돌을 쌓아서 만들어
기억에도 남고 애착도 많이 가요



박소이 삼촌 현 리사무장





Q. 삼촌, 성함과 나이 골아줍써

A. 박소이. 42세 (1982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상명으로 귀촌한 지 7년 됐어요

제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도시와는 다른 여유있는 삶을 살기위해 7년 전에

아이들 둘과 함께 제주에 내려왔어요

상명이 조용한 시골마을이지만 병원 문제 외에는 불편함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상명 마을 꽃길을 좋아해요.

특히 집에서 상명정낭문화공간으로 가는 길을 아이들과 저녁먹고 슈퍼를 다녀

온다는 핑계로 산책하다보면 사계절 모두 다른 꽃으로 저희를 반겨요

동네에 하나밖에 없던 슈퍼가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국수와 김밥집으로 새로 오

픈한다고 하시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집 뒷마당의 화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돌을 쌓아서 만들어 기억에도 남고 애착도 많이 가요



아이들과 함께 돌을 쌓아서 만든 화로

박소이 삼촌의 보물1호

〰 돌 화로 〰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 상명마을 꽃길 〰



자식도 보물이고, 내가 키우는 농작물
이런게 다 보물들 이주게



양우생 삼촌 현 개발위원님



Q. 삼촌, 성함과 나이 끌어줄써

A. 양우생, 1956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태어나서부터 쪽~지금까지 살암서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게이트볼장.

공칠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게이트볼 대회에서 큰 상도 여러번 받았주또 올해도 대회나가려고 열심히 연습중이라.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줄써

A. 하나는 아니고 여러개인디

자식도 보물이고, 내가 키우는 농작물... 콩, 브로콜리, 감귤, 밭작물들... 이런게 다 보물들 이주게



양우생 삼촌의 보물1호

『발작물』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게이트볼장』



아들이 와신디 막 좋은게!
의지도 되고...



강복순 삼촌





Q. 삼촌, 성함과 나이 골아줍써

A. 강복순, 1956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고향은 저지인데 중매로 시집와서 상명에서 산 지 45년 되신가79년도에 결혼해 시난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상명보건진료소 근처에 살다 보니까 정들어서 아무래도 사는 곳이니까 제일 상명리에서 편한 곳이주게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직장다니다가 아들이 와신디 막 좋은게 의지도 되고



의지되는 복순 삼촌의 소중한 보물!

강복순 삼촌의 보물1호

“ 아들 ”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 상명보건진료소 ”



상명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주게



고남근 삼촌



Q. 삼촌, 성함과 나이 알아줍써

A. 고남근 82세 (1944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상명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주게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상명에는 학교가 어시난 친구들 5~6명이 모영 걸으면 한림국민학교까지 두시간 걸려서. 그러니 상명아이들은 맨날 지각이주 선생님들도 그거 아난 뭐랜도 안 끌고. 책보도 어시, 고무신 신영 경 걸려도 친구들하고 같이들 가는 거난 부지런히들 그 재미에 다녔쥬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그 때는 수도 어실때라서 물이 귀해서 여자들은 물허벅으로 물 나르고, 나는 마차에 물 실어 날랑 고팡에 물독이 물로 가득차든 막 좋아해나서





고남근 삼촌의 보물1호

“물 **항아리**”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한림초등학교**”



더 많은 사람을 돕게 되니
난타가 불러오는 신묘한 힘인게



홍순화 삼촌





Q. 삼촌, 성함과 나이 골아줍써

A. 홍순화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태어나고 자라고 쪽 살았지께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상명정낭문화공간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화공간에 난타동아리 연습하는 날만 매일 기다리멘 집에서 난타북 대신 주방도구로 두드리는 연습도 하고.

문화공간에서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떠나면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옛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연극도 만들영 해 보고 싶은디...상명정낭문화공간이 생기 난 막 해 보고 싶은 것도 생겼신게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난타채, 난타북, 난타북.

난타동아리 활동하면서 난타를 배워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너무 좋은데 공연도 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봉사 공연도 하게 되니 얼마나 보람되는지.

우리의 좋은 마음을 알고 여기저기서 돕는 손길도 이어져 더 많은 사람을 돕게 되니 난타가 불러오는 신묘한 힘인게



홍순화 삼촌의 보물1호

〽 난타북 〽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 상명정낭문화공간 〽



키우는 것도 보람,
키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보람!



강경일 삼촌



Q. 삼촌, 성함과 나이 알아줍써

A. 강경일, 48세 (1975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 나이 만
큼 48년을 살았네요.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 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할머니당.

옛날에 자식들이 다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진심어린 정
성과마음이 깃든 곳이어서 너무 귀한 장
소이다.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사람은 물건이 아니고~ 음~ 가장 소중한
보물? 모두 소중한데 하나를 꼽기가 어
려운데..

지금은 육묘장에서 물 주고 있는 식물들이
쑥쑥 잘 크기를 바라고 식물을 워낙
좋아하니 보물이기도 하겠다.

키우는 것도 보람, 키워서 마을 사람들
에게 나누는 것도 보람.





강경일 삼촌의 보물1호

〰 묘종 〰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 할망당 〰



정원을 만든 일등 공신 물건이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네요



이도경 삼촌 현 스토브온 사장님





Q. 삼촌, 성함과 나이 골아줍써

A. 이도경. 42세 (1982년생)

Q. 상명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수가?

A. 장사 겸 이주한지 3년 반 정도 됐네요
1년정도 주말마다 쉬면서 찾다가 채소도
재배 할 수 있는 텃밭도 있고, 사용 면적
대비 가게세도 저렴한 듯 해서 상명마을
에 정착했네요

Q. 상명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기억 에 남는 장소는 어디마썸?

A. 망오름을 좋아해요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산책길로도 좋고,
올라가면 동네 전체가 다 보여요
석양을 가장 늦게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일몰이 장관이자 특히 20여분의 짧
은 오름등반시간도 산책하기에 부담이
없어 더 좋아요

Q.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일 소중한 보물 하나 보여줍써

A. 이 잔디깎기 같네요
고구미밭을 잔디로 덮고, 깎고 지금의
잔디정원을 만든 일등 공신물건이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네요.



이도경 삼촌의 보물1호

“잔디깎기”

삼촌이 기억에 남는 장소

“느리리오름”



상명 청소년 마을미디어기자단 활동

협재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규림

오늘 자연이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



구좌해수욕장에서!



곽지해수욕장에서!

마을주민, 해녀, 환경단체장 인터뷰

강옥순 해녀 할머니와~



유현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경험을 하게되어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



팟캐스트 교육 및 제작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까?



팟캐스트 교육 받는 우리들!



하율

평소에 해보지 못한 활동이라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같이해서 재미있었다.
라디오라는 평소 접하지않는 활동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심폐소생술·안전 교육



위급상황에 신속대처! 우리 자신있어~

견학 및 체험활동



해녀박물관 앞에서~

대나무 낚시 해봤어~?



돌고래보러 GO GO~!



해양환경 캠페인

열심히 준비중!



해민

점점 흥미가 생겼고
제주 바다에 대해 알아보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캠페인을 우리가 진행했던 경험은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다...



환경 캠페인도 성공적!

발 행 일 2023. 12. 08.
발 행 처 상명정남문화공간 문화기획자모임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한로 4
디자인·인쇄 디자인북나리 064-756-5251

이 책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202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